

“중견기업, 경제력 집중 우려없어… 기업집단 규제 예외뉘야”

중견기업·이재정 산자위원장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과학기술정책연구 박찬수 박사
“개별기업 아닌 기업군 톱다운 지원”



(앞줄 왼쪽 3번째부터) 권중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중견기업은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국가 산업정책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기업군에 대한 지원과 국가적 수요를 반영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 ESG, 가치사슬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협력 분야의 진출을 늘리기위해 중견기업의 역할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한국중견기업학회,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중견기업 정책 1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선문대학교 객관훈 교수는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견기업에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객 교수는 “중견기업의 장점 중 하나가 기동성 있게 신기술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기업집단)규제가 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곳을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불공정거래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다.

2014년 제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이 10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견기업 개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보단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중견기업특별법 10년, 기간의 정책변화 및 전망’이란 내용으로 발표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정책은 ‘바텀업(Bottom-up)’ 니즈에 대응하는 ‘지원’이 아니라 국가적 수요를 반영한 ‘톱다운’ 방식의 ‘육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단체인 중견기업연합회의 역할과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가핵심기술(산업부), 국가전략기술(과기부) 등 전략적 기술확보와 공급망 관리 등에서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산업경쟁력을 선도하기위한 국가 전략적 기술개발(R&D) 사업 가운데 ‘중견기업 전용 트랙’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장의 판단을 반영해

정부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주도형 R&D(중견팁스) ▲정책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자율적 조정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중견 R&D 바우처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중견 재도전사업 등의 정책 아이디어도 나왔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중견기업 숫자는 5526개사다. 이는 전체 기업수의 1.4%로, 국가 총 수출의 17.7%, 매출의 15.4%, 고용의 13.1%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열린 포럼은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재정 산자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한국희망의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중견기업, 정부, 국회,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진식 회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중견기업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선 안된다”면서 “오늘의 삶과 미래 세대의 풍요를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에 입각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여성 CEO·미래 경제인 노하우 공유

중기부·여경협, 예산서 통합 워크숍

여성 최고경영자(CEO)들과 미래 여성 경제인들이 충남 예산에 모여 경험, 노하우를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4일부터 이틀간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여학생과 여성CEO가 함께하는 통합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미래 세대인 여학생들의 창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배 여성 CEO의 노하우를 여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사업은 ▲여성 CEO 특강 ▲실전 창업 멘토링 ▲여성기업 현장체험 ▲미래여성경제인 워크숍 ▲글로벌 비즈니스 탐방 등으로 구성했다.

워크숍은 그동안 학교별로 진행했던 내용의 성과물을 공유유하고 함께 했

던 학생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 등으로 구성했다.

이정환 여경협 회장은 “여성기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여성기업이 앞장서서 미래세대인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사업에는 광주여대, 수원여대, 예림디자인고, 성암국제무역고, 대일관광고, 매향여자정보고, 안양문화고, 인천미래생활고, 대전신일여고, 대전여상, 천안여상, 청주여상, 전남여상, 광주여상, 학산여고, 목포여상이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여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전통시장에 소화기 6340개 배포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서 기증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13일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에서 소화기 기증식을 갖고 올해안에 전국 432곳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총 6340개의 소화기를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해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기관으로 선정하고 432곳 전통시장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화기가 부족한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협회와 협업체 화재안전점검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부족분을 지원하게 됐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동절기는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왼쪽)이 대전 중앙도매시장 유장석 상인회장에게 소화기를 전달하고 있다. /소진공

전통시장 화재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화기 기증식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강신호 “초격차 기술로 세계 물류시장 선도”

(CJ대한통운 대표)

CJ대한통운, 93주년 기념식
354명 장기근속자등 표창 수여
40년 근속 2명 특별휴가 등 수상



CJ대한통운이 서울 종로 사옥에서 연 9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왼쪽 4번째부터)신영수 한국사업부대표, 강신호 대표, 강병구 글로벌사업부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가 창립 93주년과 CJ그룹 편입 10년을 맞아 “World Class 기술로 글로벌 물류시장을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15일 창립 93주년을 앞두고 서울 종로 신사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강신호 대표와 경영진 및 수상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종로 신사옥 이전 후 처음으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40년 장기근속자 2명을 포함해 354명의 장기근속자와 우수한 성과를 보인 CJL Awards 개인과 조직을 대상으로 19개의 상이 수여됐다. 1983년 입사한 40년 근속자 김성만 지사장 등 2명은 물류의 산증인으로 특별휴가와 상급

1000만원을 받았다. CJL Awards 스탬프에는 ‘오네’를 런칭한 브랜드성장팀과 미국사업 확대에 공헌을 한 미국퀀텀점프TF 등이 수상했다.

강 대표는 기념사에서 “CJ대한통운 통합법인으로 출발한 지 올해가 10년이 되는 해라며 “매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초격차역량으로 국내 물류시장을 선도해왔다. 최선을 다해준 전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물류

헤리티지를 이어가기위해 지난해 수립한 ‘ONLYONE PASSION 2025’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실현한 첫해였다”고 평가했다.

올해 CJ대한통운은 TES 기술을 기반으로 AI, 로봇, 데이터 등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했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코웨이, 정수기·공기청정기 A/S 부문 1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평가

코웨이가 한국표준협회 주관의 ‘2023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A/S 부문 1위에 선정됐다. 14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수상으로 정수기 부문에서 7년 연속, 공기청정기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코웨이는 이번 서비스품질 조사에서 모든 항목이 업계 평균 점수를 상회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정확성과 전문성 항목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코웨이는 30여 년에 걸친 서비스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최근 고객들의 높아진 위생 관리 니즈에 맞춰 고객이 제품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이는 안심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코웨이는 탱크형 정수기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 포토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방문 관리 후 정수기 내부 탱크 사진을 촬영하여 고객에게 전송해 준다. 고객이 제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이외에도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라 자가관리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